

보령제약 바이젬셀

# 면역항암제 희귀의약품 지정

NK/T세포 림프종면역세포치료제 임상 2상 진행... 허가신청에 탄력

보령제약 관계사 바이젬셀이 자체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VT-EBV-N'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 이하 EBV)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이하 CTLs)'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바이젬셀은 현재 진행중인 'VT-EBV-201(개발명)'의 임상 2상이 끝나는 대로 신속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VT-EBV-201'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자 혈액암의 일종인 'EBV양성 NK/T세포 림프종 환자 중 관해 후 재발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 치유를 목적으로 미세잔존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2017년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고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5월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 공식저널 'Molecular Therapy'에 발표한 논문 따르면, 항암치료 및 자가이식을 받은 NK/T세포 림프종 환자 11명에게 'VT-EBV-201'를 투여한 결과 11명의 환



보령제약.

자가 모두 생존해 전체 생존율 100%, 5년 무병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환자를 5년 이상 장기추적조사한 결과다.

기존 화학합성 암 치료제로 치료했을 때의 2년 생존율이 26%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NK·T세포 림프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표준치료법이 없으며 2년 이내 재발률이 75%에 이르는 독한 암이다. 재발했을 때는 치료법이 없어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EBV는 동양인의 경우, 인구의 약 90%가 감염돼 있으며, 정상인에서는 암을 유발하지 않지만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있을 경우 잠복하던 바이러스가 활성화하여 암을 유발한다. EBV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양세포의 완전사멸을 위해서는 CTLs 반응이 필수적이다. EBV 연관 종양인 NK/T세포 림프종은 한국인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6.3%에 해당하며 아시아 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완치 후 2년 이내 재발률이 75%에 이르고 재발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상당수가 사망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다. VT-EBV-201이 상용화될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완치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젬셀은 'VT-EBV-201'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VT-Tri-A'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상용화 임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무연고사망자 장례제도 손질 동거인이 치를 수 있게 된다

1인가구 등 가족형태 다양 연고자 규정 변화 필요성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가족 대신 동거인과 친구 등이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동거인, 친구 등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지정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고, 혈연 아닌 제삼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졌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

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고,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등은 장례 절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사후 관리를 맡겨야 한다.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도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려야 한다. 장례에 대한 고인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전통적 가족 개념에 묶인 장사법 때문에 유골 안치 방식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법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 GC녹십자웰빙 “‘도라지 추출물’ 체지방 감소 효과 확인”

칼로리 저장하는 백색지방 ↓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도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회사인 GC녹십자웰빙은 천연물 원료인 '길경추출물(GCWB107)'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한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인 '뉴트리언트(Nutrients)'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길경'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도라지의 명칭이다.

경북대학교 최명숙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과제중 또는 경도비만인 성인 남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길경추출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용량 설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길경추출물' 시험군의 체지방량 및 체지방률이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Leptin)의 혈중 농도가 감소됨이 확인됐으며, 혈중 간세포 독성 등 안전성 지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GC녹십자웰빙은 현재 설정된 최적 용량을 바탕으로 개별인정용 허가를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체지방 감소'를 기능성으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도 이어

갈 계획이다.

비임상 실험을 통해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지방의 감소, 저장된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 활성화 등을 통한 체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인체적용시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혜정 GC녹십자웰빙 개발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체지방 감소와 함께 근육량의 증가도 나타나 '건강한 다이어트'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임직원·가족 김장 나눔 봉사활동

GC녹십자는 지난 2일 '용인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제 13회 가족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Day'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GC녹십자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 2일 용인기흥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GC녹십자

# 소주병에 붙은 여자 연예인 사진 사라진다

복지부 음주미화 개선 절주 정책

앞으로 소주병에 붙은 여성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전망이다. 술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홍보를 차단해 음주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음주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이 그대로 붙어있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 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세경 기자

# 동화약품 동화학술상 첫 수상자에 남기택 교수

(연세대 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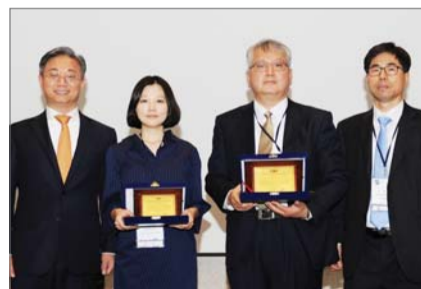
동화약품과 오가노이드학회는 '제1회 동화 학술상' 학술대상 수상자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명과학부 남기택 교수, 젊은과학자상 수상자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진윤희 연구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3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오가노이드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개최됐다.

동화 학술상 '학술대상'은 최근 5년 동안 학회 활동과 연구업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오가노이드 연구역량을 높이고, 과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첫 수상자인 남기택 교수는 위암 발생에 기원세포를 발견하고 소화관에

관여하는 줄기세포와 암 발생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장의 발달과 분화과정에서 기원세포와 관련한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하여 규명하는 등 다수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인 마이크로바이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미국병리학회지(AM J Pathol), 에이씨에스나노(ACS Nano) 등에 발표하며 우수한 연구업적을 도출해 왔다.

동화 학술상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진윤희 연구교수는 다양한 조직모사 세포 배양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직 특이성 구성성분들을 오가노이드를 이용해 모사하는 연구를 진행



(왼쪽부터)박기환 동화약품 대표이사, 진윤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남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김형룡 오가노이드학회 회장이 지난 달 3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회 동화 학술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왔으며, 기능성 유도세포를 제작하여 3차원 플랫폼을 구축, 약물의 효능 및 독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